

현불뉴스

동대학생 등 322명 수계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지난 14일 정각원법당에서 개교 90주년 기념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을 계사로 동국대 교직원, 학생, 일반불자 등 3백22명이 수계를 받았다.

불국사등 보살선거

조계종 중앙선관위(위원장 현해)는 지난 15일 회의를 갖고 불국사와 금산사 종회의원 보살선거를 6월14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또 효림, 송산스님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능직 종회의원 선거를 5월29일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소년원 봉축수계

천안소년교도소는 지난 8일 부처님 오신날 및 어버이날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여성문제연구소(회장 윤용숙)의 후원으로 치뤄진 이날 행사에는 법광스님(강원도 청암사)의 집전으로 3백여명의 소년수용자들에게 수계를 했다.

청소년불자 사생대회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초중고등학생 글쓰기 그리기 대회가 지난 12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청소년불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청교련대구지부(지부장 지성스님)와 바른글쓰기모임이 주관한 이날 대회에서 참가상은 보현사화생회가 글쓰기부문 최우수상은 '내 리사랑 부모님사랑'을 쓴 한아름선원 김소희양(고2)이, 그리기부문 최우수상은 보현사의 조영주양(초등 6)이 각각 차지했다.

구룡사 어린이 큰잔치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12일 문화회관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제1회 어린이 큰잔치를 개최했다.

분당 아람유치원을 비롯 어린이집 1곳을 포함 11개 유치원 2백여명의 어린이가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구연동화와 율동, 노래자랑 등의 발표회를 가졌다.

월주님 소송 '기각'

서울지법 민사 합의 13부(부장판사 성문용)는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소송'과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선고 공판에서 두건 모두 일부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려 사실상 소송을 종결했다.

“고속철 경주통과 문화위기”

종교·학계대표 77명 지식인 선언 대구-부산 직통 주장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77명은 지난 15일 '경부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지식인선언'을 통해 "고속철도의 경주 경유는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결정되었을 뿐으로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는 천 년의 역사도시를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경주통과를 취소하고 대구-부산으로 직진하는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 형산강노선안의 지하구간은 자살구간보다 4~5배의 건설비가 소요되고 매장문화재 발굴로 공사기간 또한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도

걸코 이득이 없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경주를 통과해야 한다면 경주 외곽인 건천-화천을 잇고 건천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문제부의 대안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태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중운동 등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를 방문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추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영 고속철도경주통과 백지화추진위원장, 시인 고은, 한병삼 문화재위원 등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20여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지식인선언에는 월주 조계종총무원장, 해오 태고종총무원장, 윤덕천태종총무원장, 최근덕 선공관장, 한광도 천도교총무원장, 범하 법정 설조 태웅스님, 황수영 정재각 민병천 전 동국대총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박운흔 대구대총장, 김찬국 상지대총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총장, 강원홍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김보현 원불교 은혜심 기본부장, 서문각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중서 교육개혁위원장, 시인 서정주 구상 조병화 김지하, 소설가 이문열 남지심, 임효재 한국고고학회장, 손봉호 권태준 경실련공동대표, 서영훈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공동대표,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장, 유재현 경실련사무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사무총장, 윤용숙 여성문제연구소

회장 등 77명이 서명했다. (정성운 기자)

캐나다 법교민 종교인 대북지원기구 발족

수재와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동포를 돕기위한 법교민 종교인 지원기구인 '북한동포돕기 후원회'가 지난 4월25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식 발족했다.

토론토 한인사회봉사회에서 열린 발기인 모임에서 공동위원장인 양일스님(대각사 주지) 조이식 목사, 이인주 신부, 조성준 메트로시 의원을 선출하고 국제적십자를 창구로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누는 연등, 나누는 마음

불국위 연등선물하기 캠페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4일 탑골공원에서 3천5백여 노인들 대상으로 노인공양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탑골공원 노인 의료·급식 공양

조계종 복지재단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주)은 지난 14일 탑골공원에서 노인공양행사를 개최, 사회의 냉대와 소외속에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했다.

이날 노인공양행사에서는 복지재단과 한국불교사회봉사회가 마련한 무료급식, 신농백초 한의원 한의사와 조계사내에서 농성중인 한의사, 아산재단 중앙병원 무료진료팀의 무료진료, 이마음기술자들의 이마음 봉사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됐다.

외국인 노동자 50명

조계사에서 봉축법회

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부

처남오신날 봉축법회가

지난 12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법회에는 외국인노동자 마을,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불자와 외국인노동자와 사부대중 2백여명이 동참했다.

중앙신도회 창립증지 요청키로

전신회 7인대책위, 조계종에

전국신도회는 지난 14일 오후 송현클럽에서 제2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7인화성화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수)의 권한을 회장단 선출 때까지 연장키로 하는 한편 7인대책위를 통해 중앙신도회 창립증지를 조계종 총무원과 협의키로 했다.

이에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법타스님은 "조계종의 유일한 신도조직은 중앙신도회 뿐"이라며

파라미타 첫 문화축제

서울지부 발대...사찰·학교 93곳 가입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총재 성타)는 지난 12일 잠실역 도경기장에서 서울지부 발대식 및 제1회 청소년문화대축제를 개최했다.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소년문화대축제에서는 동대부고의 탈골공연, 동대부중 명성여중등의 청소년들의 무대가 마련됐다.

오는 5월까지 1백20개의 분회가입을 목표로 하는 파라미타는 현재 사찰단과 학교단을 포함 93개가 가입되는 등 조직사업이 활기를 띄고 있다. 파라미타는 오는 6월중 부산지부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말까

지 전국 15개지부를 출범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직사업과 함께 청소년 법요집발간(5월말), 덕유신캠프(8월6일~9일)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ASEM 경주유치

위덕대서 서명운동

위덕대(총장 손재석)는 지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대표 77명은 지난 15일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고은 이기영 서문각박사 등 지식인대표들은 경주고속철도 통과를 천년 역사도시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은에 7번째 노인병원

연꽃마을, 6월부터 무료의료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지난 6일 이구삼씨(45)로부터 충북 보은군 소재 '동제의원'을 기증받아 오는 6월 노인무료병원을 개원한다.

서울 마포·송파, 군포, 안양, 대전, 청주에 이어 7번째 노인 무료병원 개원을 앞두고 있는 연꽃마을은 기증받은 동제의원을 빠른 시간안에 노인질환 전

문의원으로 전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서비스에 틀어갈 계획이다. 동제의원은 기증자 이구삼씨의 선친 이희철씨가 40여년전 개원한 것으로 보은지역내에서는 가장 역사깊은 의료기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계사 대웅전붕괴 항의

신도 6명 부상당해

한국일보 사옥 신공공사로 인한 조계사 대웅전 붕괴 대책을 요구하는 조계사 신도들이 현대건설 직원들과 충돌, 신도 6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조계사 성정수호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식)는 지난 11일 신도 3백여명과 함께 현대건설 본사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던 중 현대건설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현대에' 홍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번 ASEM 유치캠페인은 15일부터 22일까지 학생회간부와 교수·교직원이 참가하여 학교와 경주역 버스터미널 대령원 불국사 보문단지에서 열린다.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3층의 남골당과 부속 시설, 지상에는 영묘전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대표는 "앞으로 양평지역과 백양사 등의 남골당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사 대책위는 사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17일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시흥=김원우 기자



유족사 주지에 정락스님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유족사는 지난 13일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주지에 전 포교원장 정락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는 2백여 문도 가운데 선거자적이 있는 44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주지로 선출된 정락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중앙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포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승가대학장에 지하스님
중앙승가대학(이사장 월주)은 지난 13일 조계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승산스님의 사표수리에 이어 지하스님(종단협 부회장)을 후임 학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한 지흥(낙산사주지) 정수(용문사주지) 원우(총무원 재무부장)스님을 후임 감사로 선임했다.

“혈오시설 이미지 불식시켜야”

영각사 '불교남골문화정착' 토론회

영각사(영각사 주지)는 "화장·남골제도의 정리를 위해서는 혈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불식할 수 있도록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며 "장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종교계의 책임과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

동안 매장한 뒤 남골하는 시한 부매장묘제도의 운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이어 지호실업 이병호대표는 영각사 사원극락묘역전 공사진행을 설명하고 고계 최초로 사원내에 허가받은 영각사 남골당은 지난 4월 기공식을 갖고

마음 내 몸은 생명, 집합소

내 몸은 내 몸의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생명의 집합소입니다. 고로 밥을 먹어도 내가 먹는게 아니라 공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리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내에게는 고정된 이윤도 불지 않습니다. 어느 때의 나를 내리고 하겠습니까. (한가은요전)

협찬 한아름선원 범형제회

봉축 불교성지순례 봉축 부처님 오신날

헤초의 특별기획 <한정파격요금>

스리랑카 5박6일
▶출발일 : 6/4, 25, 7/9, 23, 8/6, 27 동참금 : 89만원

일자	방문지	교통편	일정
제1일	서울	국제선	서울출발 콜롬보 도착
제2일	콜롬보	전용차량	스리랑카 최대 불교유적지 아누라다푸라 도약 사진, 이소부두니아 사원, 푸란델라에 대탑, 보리수사원 순례, 스리랑카 최초의 불교 전래지 미힌달라 순례, 미힌달라 출발 / 리비리아 도착
제3일	콜롬보	전용차량	폴론나푸와 불교유적 순례 시가리야 암산 요새 방문 담판다 석굴 사원 순례후 캔디 도착
제4일	리비리아	전용차량	부처님 지사리가 모셔진 불지사 순례 연덕시내 관광후 콜롬보 도착 리비리아 사원, 강가라마 사원 순례후 리비리아 도착
제5일	콜롬보	전용차량	휴양지 리비리아 해변 휴식 콜롬보 시내 명소 관광
제6일	서울	국제선	콜롬보 출발 서울 도착 *성불하십시오.

티벳 중국 네발 9일
▶출발일 : 6/9, 7/7, 8/11 동참금 : 230만원

서울-상해-성도-라사-장제-시가체-라사-카트만두-기내-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9일
▶출발일 : 6/12, 21, 7/6, 20, 8/5, 17 동참금 : 159만원

서울-상해-서안-난주-가옥관-돈황-유원-트루판-우름치-북경-서울

민족의 영산 백두산

▶특선1 백두산 연결 3박 4일
▶출발일 : 6/8, 22, 7/6, 13, 20, 27, 8/3, 14, 24 ▶동참금 : 78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심양-서울

▶특선2 백두산 연결 북경 만리장성 5박 6일
▶출발일 : 6/4, 20, 7/2, 9, 16, 23, 30, 8/13, 20, 9/3 ▶동참금 : 99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북경-서울

고품격 대만 성지 순례 4박5일

▶출발일 : 6월 5일 ▶동참금 : 65만원
서울-심양-연길-백두산-연길-북경-서울

헤초여행사 국외여행업 601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각 사찰 신도회 단체 성지순례 수시출발 상담환영(일정조정가능)